빈집이 살아난다…순천시 '빈집 뱅크제' 효과 만점

소유자-수요자 연결 전국 첫 추진
원도심 방치된 빈집 17동 찾아
은퇴자·청년 등 연결해 재활용
도시 미관 살리고 범죄 줄어

도심 빈집을 재활용하는 '빈집 뱅크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뱅크제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빈 상가 또는 1년 이상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도심의 빈집은 도심 미관 저해와 범죄 장소 이용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에 노출됐고, 주변 지역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돼왔다.

순천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원도심 쇠퇴지역에 방치된 빈집 17동을 찾아 수요자(은퇴자, 청년, 여성 등)와 연결했다.

순천시는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빈집 정보를(58동) 7월부터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빈집 뱅크제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행동과 중앙동 도시재생 지역에 실제 빈집 수를 156동에서 6동을 줄이는 성과를 냈고, 범죄 발생건수도 2014년 100건에서 2018년 52건으로 50%이상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다.

인근 주민들도 빈집 뱅크제로 범죄우려가 줄어들고 부족한 주택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1석 3조의 지역특화 사업이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빈집 뱅크제가 원도심 재생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며 "빈집을 묶어서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순천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변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빈집 뱅크제를 활용해 빈집이 우아한 청년 레스토랑으로 변신했다. 〈순천시 제공〉

가곡지구 집중호우 불안감 벗어난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행안부 생활밀착형 SOC 선정
2022년까지 190억원 투입

순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가곡지구가 2015년 순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막대한 예산 소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는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찾아 사업의 시급성, 합리성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사업은 190억원(국비 95억원, 시비 95억원)의 예산으로 81ha의 유역 면적에 대한 침수예방을 위해 1만 입방미터(㎥)의 우수저류조, 3만 입방미터(㎥)의 유수지, 분당 120t의 배수펌프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시는 2015년 3월 풍수해저감계획에 반영된 상습침수지역 6개소 중 동외동, 성동로타리, 조곡, 남정, 장천지구 5개소는 내년 말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가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최근 이상 기후로 발생하고 있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발생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

순천형 농정혁신 5개년 발전계획 수립

농촌경제 활성화 등 적극 추진

순천형 농정혁신 중장기 전략이 나왔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농사짓는 사람이 만족하는 순천형 농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도농복합도시 순천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향후 5년간 추진할 농업·식품산업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개발,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강화 및 농정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부문별 핵심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농정혁신의 기본이념과 핵심가치를 반영해 순천시 농촌자원과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보고회, 주민의식 실태조사, 관련부서 및 관계자 면담, 토론회등을 통해 수렴된 농업인들의 의견을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했다.

시는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해 성과를 보완하고, 2028년에는 2단계를 추진함으로써 순천의 농업부문을 획기적으로 변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희성 순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농사짓는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한 농촌 구현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정원 300만번째 입장…지난해보다 한달 빨라

올해 순천만국가정원 300만 번째 방문객이 지난해 보다 한 달여 앞서 나오는 등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은 총 545만 명이 다녀간 가운데 300만 번째 손님은 8월 18일에 입장했다. 올해 300만 번째 입장객은 작년에 비해 46일 앞당겨진 셈이다.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시의 적극적인 순천방문 홍보활동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해 상반기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품격의 '봄꽃향연'과 세계가 함께 하는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등 다양화와 차별화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오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물빛축제'가 개최된다. 3회째를 맞는 물빛축제는 38일간 워터라이팅쇼, DJ치맥페스티벌, 라이트가든등 무더운 여름밤 시원함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람객 600만 명 돌파를 예상하고 있다"며"뜨거운 여름을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물빛축제와 함께 시원하게 보낼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예년보다 빨리 찾아 온 무더위를 맞아 동문 꿈틀정원 물놀이장과 서문 습지센터 물놀이장을 지난 2일부터 개장해 운영 중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

순천 홍보대사 김정택 예술단장 순천 주제 노래 만들어 '화제'

순천을 노래한 '순천으로 가자'를 작곡한 김정택 SBS예술단장(맨 오른쪽)과 허석 시장(가운데), 작사가 박희영 명예홍보대사가 노래 전달식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홍보대사인 김정택 SBS 예술단장이 순천을 주제로 노래를 작곡해 화제다.

순천시에 따르면 김 단장은 최근 순천에 대한 추억을 그리며 작곡한 '순천으로 가자'를 시에 전달했다.

김 단장은 53년 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친구와 무전여행을 하던 중 목포를 지나 순천으로 오는 길에 돈이 떨어졌다.

가까스로 순천 터미널에 도착한 김 단장은 맘씨 좋은 아저씨를 만나 숙식을 해결하고 다음날 부산으로 가는 차비까지 도움을 받았다.

당시의 좋은 기억을 추억으로 간직했던 김 단장은 아저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그리움을 담아 노래를 작곡했다.

가사는 순천 출신인 박희영 명예홍보대사가 썼다. 박 대사는 '가자 가자 꿈을 안고서 낭만이 있는 그 곳, 은빛 금빛 붉게 물드는 순천만 갈대숲으로'라는 가사로 아름다운 순천을 노래했다.

순천시는 '순천으로 가자'를 음반으로 제작해 순천시를 알리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순천시 최우수상 수상

순천시가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주최한 '제4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회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47개소에서 응모해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순천시는 최종 발표대회에서 '2019년 순천방문의 해와 연계한 관광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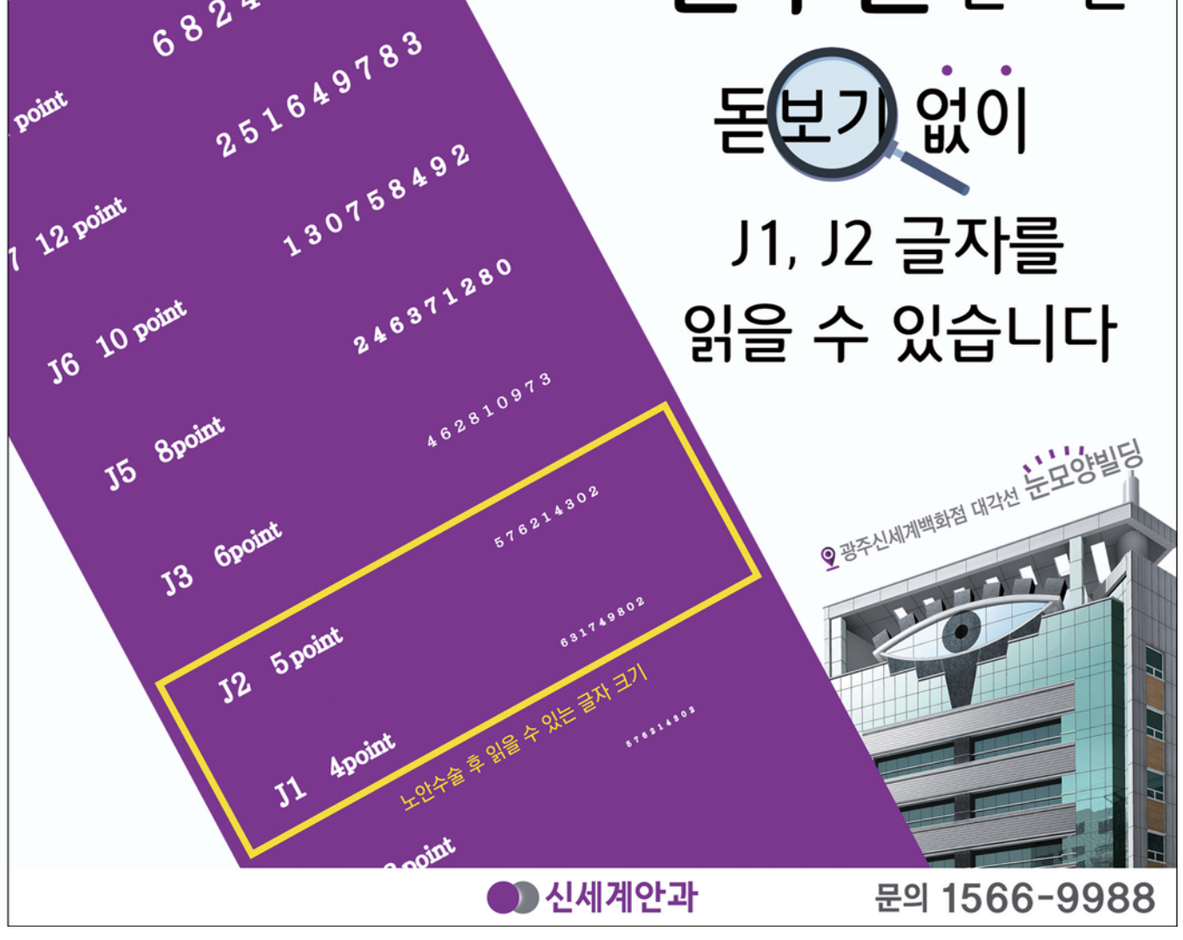
시는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공통기반시스템인 '혜안'을 통해 뉴스와 SNS 노출 건수, 관광객 수의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직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마다 '혜안'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결해주는 상황극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